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공공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3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1(통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종으신 하나님, 기적처럼 우리 앞에 있는 하루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기적처럼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이 땅과 자연, 기적처럼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창을 엽니다. 나의 불신앙, 교만, 욕망으로 어질어진 내면에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비취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은 우리 안의 이기적인 자아를 부추겨,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적인 안락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는 꿈을 조롱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의 포로가 되어 살게 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창조주요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참'에 속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빌4:6-7 인도자
- ♣ 교 독 문 46. 시편104편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I. 윤 윤 선생 II. 한상의 장로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322(통357).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함께
- 성경봉독 I. 겔37:1-14 이승철 학생
II. 사32:15-20 유경순 권사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그 바람을 보다 손성현전도사
II.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김기석 목사

- 찬 양 459(통514). 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쓰러뜨릴 듯 달려드는 광포한 세파 앞에서 두려워 마십시오. 의의 열매로 맺힌 평화와 번영을 꿈꾸며 담대하게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안전과 평안에 관심하던 지난 날의 삶을 반성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로움에 기초한 평화와 생명을 꿈꾸며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전교우 여름수양회 보고 집회	“그 사람이 사는 법” (손성현)
	기도: 전충길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박소진 선생	한성건 선생	천승호 학생
	김재흥 목사	김인걸 장로	이성범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박두석 박성실 이건화 정경례
	헌금위원	한완식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다름’에 대한 교훈

르완다 제노사이드(genocide, 특정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대량학살)는 가해자들에 대한 놀랍도록 생생한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투치’ 반군이 키갈리를 장악하자 이웃나라로 도망쳤던 ‘후투’들은 몇 년 안에 대부분 르완다로 돌아왔고, 그들 중 일부는 가차차(Gacaca) 재판에서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

평범한 농부, 교사, 학생, 공무원이었던 학살자들은 제노사이드 기간 동안 오히려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매일 호각소리로 시작해 종료호각이 울릴 때까지 열심히 사람을 죽였습니다. 집에 일찍 가야할 사정이 있을 때는 동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하기도 했습니다. 업무가 사람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빼면 직장생활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치인 아내의 생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이 학살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처음 자기 손에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눈을 보았을 때의 공포와 끔찍함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무감각했다고 고백합니다. 민병대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이들에게 머체티(날이 넓은 칼)로 쉽게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려 주고 실제 사람들을 상대로 연습도 하게 했으며,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번이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학살자들을 움직이는 중심에는 라디오방송국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방송은 투치를 ‘바퀴벌레’로 지칭하며 바퀴벌레를 죽이라는 일반적인 지시와 함께, 지금 투치 바퀴벌레 누구누구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으니 그를 죽이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고, 방송국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라디오방송국이 일종의 학살사령부였던 셈입니다. 라디오방송의 지시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투치반군의 위협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강간했습니다.

조직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치들을 죽이고 강간하면 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목표만 존재했습니다. 지도자도 따로 없어서 교회성가대 지도자를 하다가 당장 학살지휘자가 된 사람도 있고, 현지 공무원의 지위에서 학살을 지휘한 사람도 있습니다. 길모퉁이마

다 조악한 검문소를 설치하고 신분증을 검사해 투치인 것이 확인되면 그냥 죽이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성이 가져다준 놀라운 효율성이었지요.

괴물이 된 국가시스템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악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두명의 악마와 수많은 평범한 복종자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가 집적된 성경이, 세상을 움직이는 ‘정사(政事)와 권세들’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공포영화 속의 괴물이나 귀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학살의 손발로 만드는 진짜 괴물 또는 시스템입니다[이런 문제에 대한 더 깊은 논의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월터 윈그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한성수 옮김, 한국기독교연구소 2009)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죽이는 사람과 죽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는 사실 너무나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모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르완다 제노싸이드를 낳은 출발점은 우습게도 ‘우리 투치들이 후투보다 키도 크고 잘 생겼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투치들의 오랜 후투 차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을 강화한 것은 서구의 식민세력이었고, 그 차별에 반발한 후투의 오랜 분노가 학살을 낳았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보면 ‘저놈만 없어도 세상이 살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동서로 갈라지는 나라에서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저쪽 사람들만 없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울까?’ 하는 은밀한 욕망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배후에는 뭔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지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DNA는 99.95%가 동일하고 오직 0.05%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 0.05%에서 우리 모두의 다양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사소한 다름에 기초해 민족, 종족, 인종, 종교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살하려던 역사상의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죽였는데도 언제나 생존자는 남았습니다. 제노싸이드를 통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행복하게 살아보자는 시도는 끔찍한 후유증만 남겼을 뿐입니다.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늘

배문성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쉴 수 있을 것 같아
서늘한 표정이 편안하게 해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천천히 부르는 노래를 알고 있을 것 같아

내 그늘보다 더 큰 그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품에 안기면 서늘한 노래 흘러나오고
쉬고 있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

그늘에 핀 꽃들이 내쉬고 있는 낮은 숨소리를 들으면,
바람 지는 노래에 귀 기울이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표정을 보면,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상처들과
그 그늘에서 쉬고 있는 눈물들의 사연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늘에 잠기면...
그 사람의 얼굴에 내린 그늘이 나를 보고 있으면
그 그늘에 마음껏 생채기를 펼쳐도 될 것 같아
그 속에서 목 놓아 울어도 될 것 같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야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김준우 우순덕 권미숙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김필순 김혜권 박재임 문복순 최현선 박창운 허정윤 손성현 임주빈
 최현옥 허호범 박성실 박시내 조현권 박병구 김정애 김종락 박영신
 이우원 옥귀희 박소진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남중 오복순 김미순 김승현 김수진 송임회 이정은
 정완수 김재광 최윤희 최재욱 이수정 강미라 박석희 조항미 한정애
 무명3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김순복 배부례 최재욱 이수정 양재성 임미심 하재두
 박사라 전세중 김정민 전성오 오송경 문희창 이명환 무명6

녹색꿈헌금:

오현정 안종일 정현주 박영신 장원호 박성희 최경미

생일헌금:

손민아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쉽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8월 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 **수양회 보고** : 오늘 오후집회시간에 수양회 보고를 합니다.
3. **장학금 수여** : 2010년 청파 장학생 장학금을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수여합니다.
4. **별세** : 지난 19일 김정섭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를 엄수하였습니다.
5. **신앙실천** : 청량음료가 마시고 싶을 때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대신해 보십시오. 자연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길이 됩니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다음 주 : 고린도 속)

* 설거지 봉사 : 허호범 박성실 이준하 (다음 주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